

文 대통령, 청와대 수석 인사 파격 단행

▶ 개혁 · 소통에 초점 맞춰

민정수석에 '非 검찰출신' 조국 서울대 교수
인사수석에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
홍보수석에 '전북출신'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

총무비서관에 이정도 기재부 행안예산심의관
춘추관장에 권혁기 전 국회 부대변인 등 비서관급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단행한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인사는 개혁과 소통에 방점이 찍힌 파격적 인선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인사수석에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 홍보수석에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을 임명했다.

또한 총무비서관에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을, 춘추관장에 권혁기 전 국회 부대변인을 선임하는 비서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이 가운데 비 검찰 출신인 조 민정수석의 발탁은 가장 파격적 인사라는 평을 듣는다.

민정수석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독점해 온 자

리다.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 · 사회기강 관련업무 보좌 등의 업무 외에도 법무부와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관찰도 민정수석의 몫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비 검찰 출신인 조 민정수석을 발탁한 것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란 해석이다. 검찰 조직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데다 진보적 성향의 법학자로 문 대통령과의 코드도 맞아 떨어진다 는 평가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 독점하면서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며 "새 정부는 비검찰 출신으로 법학자를 임명해 권력기관을 정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윤영찬 홍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치에서 독립시키는 동시에 권력개혁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용 하면서부터 검찰개혁을 상당한 우선순위에 뒀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정치 권력의 시녀와 같은 역할을 해 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줄이겠다고 공언해 왔다.

또한 전날 취임 선서식에서도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검찰 개혁 의지를 재차 다졌다. 조 신임 인사수석 임명도 최초의 여성 인사수석인 만큼 파격 인사로 평가된다.

노무현 정부 때 생긴 인사수석은 이명박 정부 들어 없어졌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6월 잇따른 총리

후보자 나마를 계기로 부활했다. 여성 인사수석은 이전 정부에서 없었다.

동시에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동수내각'을 실현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해 첫 걸음을 내디는 의미도 있다.

이정도 기재부 국장을 총무비서관에 임명한 것도 개혁에 강조점을 찍은 이례적 인사로 평가된다. 총무비서관은 인사와 재정을 총괄하는 자리여서 대통령의 최측근을 앉히는 것이 관례를 깬다는 점에서도.

대표적으로 박근혜정부에서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으로 일했으며 실제로는 설(說)에 그치는 했지만 문 대통령의 측근인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이 총무비서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를 예산정책 전문 행정 공무원에게 맡겼으로써 철

저히 시스템과 원칙에 따라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 인사와는 별도로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임명했는데 이

역시 파격 인사의 범주에 속한다.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 대상으로 거론해 왔던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기획비서관과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역임했다는 점에서도.

이는 전날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남 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을 강조했던 통합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국정홍보를 진두지휘할 홍보수석에 언론인 출신인 윤 신임 홍보수석을 발탁한 것은 소통에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임 실장은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균형감과 정부감각을 지닌 언론친화형 인사로서 언론을 국정운영 동반자이자 대국민 소통의 창구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언론철학을 충실하게 보좌할 책임자"라고 평했다.

/인재용 기자

文 대통령, 아베에 "위안부 합의 국민정서상 수용 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한 · 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그 합의를(위안부 합의)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5분부터 25분간 아베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 · 일 관계 발전 방향과 한반도 정세, 과거사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교환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는 우리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때 함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일본의 지도자들이 과거 고노 담화, 무리야마 담화, 김대중-오부치 공동성명의 내용과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청와대, 황교안 총리 사표 수리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황 총리와 박 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황 총리와 오찬에서 시의 표명 의사를 전달받았고, 하루 뒤인 이날 수리했다.

윤 수석은 "대통령은 새 정부가 자리잡을 때까지 총리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고, 황교안 총리는 '새 술은 새 부대 담는 게 좋겠다'고 하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임명 전까지 총리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윤 수석은 "황 총리가 사임해서 유 부총리가 일단 총리 대행을 하게 되겠지만, 추후 인사나 장관 추천에 대한 부분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새로 총리가 임명 됐기 때문에 가급적 총리께서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인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도 함께 수리했다. 박 처장은 5·18 공식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 결정을 놓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뉴시스



"웃으면서 합시다" 11일 전주대학교 희망홀에서 '전북 열린 일자리 채용박람회'가 열린 가운데 전북은행 부스에서 현 장면점이 밝은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혁신도시, 제2도약기 진입

한국식품연구원 9월 이전시
12개 공공기관 이전 마무리

도, 지역산업 진흥 협력
특별법개정안 등 건의키로

전북도는 전북혁신도시의 기본인프라 구축과 기관 이전이 올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공공시설의 경우 119안전센터, 경찰 파출소, 우체국 등이 모두 준공.운영 중에 있고, 복합문화체육시설도 부지 매입과 기본계획 수립 등이 추진중에 있는 상황이다.

청사 신축중인 한국식품연구원까지 오는 9월에 이전해오면 전북혁신도시에 12개 공공기관 이전은 마무리된다. 혁신도시내 15개 아파트 단지는 모두 입주를 완료했고, 지난해 착공한 주상복합 1개 단지도 분암이 끝나 2020년 입주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주변 편의의, 식당 등 상업시설과 사설 입시학원, 의료시설도 인구유입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해 주민들의 자녀교육 및 생활 불편함이 많이 해소됐고, 혁신도시 공동주택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주요 불편사항이었던 대중교통 문제는 지난 2월 전주.원주 시내버스 개편을 통해 크게 개선돼 혁신도시에서 금암동 버스터미널, 서곡지구, 서부신시가지 등 주요 거점을 8개 노선이 운행중이며, 수도권 고속버스가 정착하는 호남제일문 간이터미널은 혁신도시에서 15분이면 도착한다.

전북도는 공공기관 이전 완료단계에서 제2도약을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과 '수도권 소재 신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 2차 이전'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토·일 신문 쉽다.

매일 INDEX
3면 - 문 대통령, 시진핑과 통화 4면 - U-20 월드컵 시내버스 특별노선 12면 - 비보이그랑프리 28일 개최

제23회 지리산 운봉 아래봉 천국꽃제

2017. 4. 22(토) ~ 5. 21(일)

주제 : 사랑의 기쁨! 그리고 힐링의 발원!
장소 :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지리산 운봉 아래봉 일원
주최 : 운봉애향회, 운봉읍
후원 : 남원시, 운봉읍 사회(봉사)단체